

전제 부정의 악센트 실현 양상*

-일반 부정과 비교하여-

The Accentual Realization of Negation of Presupposition in English -In Comparison with General Negation-

전 지 현** · 박 순 복** · 김 기 호**

Ji-Hyun Jun · Soon-Boak Park · Kee-Ho Ki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centual realization of negation denying the presupposition of a previous utterance compared with that of a general negation. Specifically we study what types and positions of accent are realized in the speech of Korean speakers us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s well as English native speakers. Gussenhoven (1983) and Bolinger (1985, 1986) suggested that when presupposition of previous utterances is denied through negation, focal accent is assigned to empty (functional) words, rather than negative morphem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owever, show that negation sentences denying presupposition have accents not only on empty (functional) words but also on content words. Almost every English native speaker places an H* accent on the negative morphemes themselves (not, no, nothing, etc.) in general negation, as well as on the other lexical items—verbs and prepositions in our data— in negations denying presuppositions. On the other hand, Korean speakers hardly distinguish between the two kinds of negation sentences, unlike native speakers through accentual differences. Rather, they give accent an every content word, including the negative morphemes in both general negations and negations denying presupposition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do not absolutely support the previous studies on the denial of presupposition.

Keywords: Focal Accent, General Negation, Negation of Presupposition, Negative Morphemes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의미·화용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전제'(presupposition)의 개념이 영어의 부정문에 쓰였을 때 실현되는 악센트의 위치와 악센트의 유형에 대하여 살

* 본 논문은 교육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핵심 분야'의 지원으로 연구된 것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펴보고자 한다. '전제'라는 개념은 주로 의미·화용론에서 다루어진 주제이며 이는 철학적 지시(reference)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전제'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서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의 문장이 구 정보와 신 정보가 결합한 것으로 볼 때 '구 정보'(old information)에 해당한다. 또한, 전제는 크게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미론적 전제란 문장 자체의 의미 속에 내포된 전제를 가리키며, 화용론적 전제란 문장의 의미와 크게 상관없이 담화 상황 즉 발화 당시의 상황을 통해 전제되는 것을 가리킨다(Lambrecht1994:61).

본 논문은 의미론적 전제, 즉 WH-의문사로 시작하는 선행 발화 속에 포함된 전제를 부정하는 영어 문장에서 악센트가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실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를 대상으로 단순 일반 부정문과 비교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화용론적 전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데, 이는 화용론적 전제가 다양한 담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실험에서 통제하기 어렵고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인식한데 기인한다.

Gussenhoven(1983)과 Bolinger(1985,1986)에 따르면, 일반 부정에서 부정어가 강조되는 반면 전제 부정은 부정어에 초점이 오지 않고 기능어의 역할을 하는 어휘에 초점 악센트(focal accent)가 부여된다. 즉, 선행 발화에 포함된 전제를 부정하는 경우에 일반 부정과 달리 부정어가 아닌 전치사나 조동사 등의 기능어에 초점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또한, Liberman & Sag(1974)에 의하면 전제 부정에서 이러한 기능어가 강조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어가 고 성조 피치 악센트보다는 저 성조 피치 악센트 L*에 의해 실현된다. Gussenhoven(1983)과 Bolinger(1985,1986)의 견해는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이라는 두 유형의 부정문이 서로 다른 위치에 악센트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방의 발화에 내포된 전제를 부정하는 경우 부정어 이외의 어휘 항목에 악센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발견으로 간주된다. 또한, Liberman & Sag(1974)의 주장은 L*가 강조는 하지만 단언하지 않는 구 정보를 전달한다고 주장한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의하면 전제 부정에서 선행 발화의 전제를 부정할 때 L*로 실현된다는 점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음운적 분석과 기술에 그치고 있으며 전제 부정의 자료에 대한 실험 음성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자가 동일한 하나의 영어 문장을 발화할 때 전제를 부정하는 경우에 전제를 부정하지 않는 일반 부정과 비교하여 악센트가 달리 실현되는지 실험 음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전제 부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순수하게 음운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선행 연구의 결과를 실험 자료에 포함시켜 검증함과 아울러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 전제를 부정하는 문장과 일반 부정문을 어떠한 악센트로 어떠한 위치에 실현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한국인 화자의 경우 영어 모국어 화자들과 비교하여 두 유형의 부정문을 악센트의 차이로 잘 실현시키는지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1.1 가설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음운적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치 악센트의 위치와 유형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 연구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지 검토하였다.

[가설 I]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 부정의 경우에 그 문장의 부정어를 강조하나 전제 부정에서는 선행 발화에 담겨진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정어가 아닌 다른 어휘 항목을 강조한다.

[가설 II]

일반 부정의 경우 부정어에 고 성조 피치 악센트 H*가 부여되며 전제 부정의 경우는 악센트를 부여 받는 어휘 항목에 L*가 부여될 것이다. 이는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를 강조할 때 H*를, 그리고 강조하고 있으나 단언하지 않고 구 정보에 해당할 때 L*를 부여한다. 즉, 일반 부정의 '~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정보는 H*에 의해 강조될 것이며, 전제 부정에서 전제를 부정한다는 것이 화자의 인식 속에 있는 정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구 정보를 나타내는 L*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가설 III]

한국인 화자들은 부정어가 들어간 문장에서 부정어를 강조하도록 학습되어 있으므로 두 부정문의 유형에서 동일하게 부정어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부정문과 전제 부정문을 적절한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2. 실험

2.1 실험 방법 및 절차

실험에 참가한 영어 모국어 화자는 미국과 캐나다 출신의 30, 40 대의 K 대학 어학원 강사들이며 실험 문장을 처음 4 명의 화자에게 5 번씩 반복해서 읽혔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험문장 중 4 개의 문장이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다른 2 명의 모국어 화자에게 그 4 문장들만을 10 번씩 반복하여 읽게 하였다. 또한, 영어 모국어 화자에게 사용된 동일한 실험 문장들을 한국인 대학생 4 명(이들은 K대학 신입생으로 언어 연수와 개인 회화 수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간호학과 여학생 2 명, 이공학부 남학생 2 명이다)에게 영어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횟수로 읽게 하였다. 그러므로 실험에 사용된 토큰의 수는 모국어 화자의 경우 260 개((4×9×5)+(2×4×10))이며 한국인 화자의 경우 180 개(4×9×5)이다.

녹음은 DAT(digital audio tape)를 사용하여 조용한 실험실에서 이루어졌고, pitchwork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로 F0와 피치곡선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 Pierrehumbert(1980)의 억양 음운론과 ToBI 체계에 의하여 표기하였으며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근거하여 문장을 해석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SAS 8.1에서 일차원 빈도 분석의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통계처리를 통해서 실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2.2 실험 자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 문장은 모두 부정어(not, no, never, nothing)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 가부의문문(Yes/No question)에 대한 부정의 대답(일반 부정문)과 전제를 포함하는 WH-의문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전제 부정문)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총 9 개 쌍이다.

- | | |
|--|--|
| (1) Q: Was Patty in your car?
A: No, Patty was never in my car. (일반 부정)
Q: What was Patty doing in your car?
A: Patty was never in my car. (전제 부정) | (2) Q: Did you break the window?
A: No, I did not break the window.
Q: When did you break the window?
A: I did not break the window. |
| (3) Q: Is your house on fire?
A: No, my house is not on fire.
Q: When did your house catch fire?
A: My house is not on fire. | (4) Q: Did you break her china?
A: No, I did not break her china.
Q: Why did you break her china?
A: I did not break her china. |
| (5) Q: Did you buy the books?
A: No, I did not buy the books.
Q: Where did you buy the books?
A: I did not buy the books. | (6) Q: Do you have pictures to look at?
A: No, I have no pictures to look at.
Q: Why aren't you looking at your pictures?
A: I have no pictures to look at. |
| (7) Q: Do you have any books to read?
A: No, there are no books to read.
Q: Why haven't you started reading yet?
A: There are no books to read. | (8) Q: Do you have anything to say?
A: No, I have nothing to say.
Q: Why don't you say something?
A: I have nothing to say. |
| (9) Q: Did you take the garbage out?
A: No, I did not take the garbage out.
Q: Why did you take the garbage out?
A: I did not take the garbage out. | |

위와 같은 9 쌍의 문장 각각의 질문과 대답 중 전자의 경우는 가부의문문에서 부정의 대답에 해당하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는 일반 부정문이며, 후자의 경우는 선행 발화의 전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WH-의문문에 대한 대답에 해당한다. WH-의문문은 Katz(1972)에 의하면, 전제를 유발하는 장치의 하나로서 그 질문 내에 일정한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실험 문장 중 (2), (4), (5), (9)의 네 개의 문장은 조동사 'did'와 부정어 'not'이 결합한 문장으로 본 논문에서는 축약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피 실험자들이 영어 부정문이 두 가지 부정에 따라 부정어에 악센트를 부여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실험 결과

3.1 영어 모국어 화자의 실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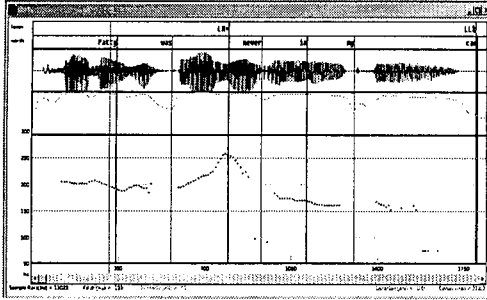
영어 모국어 화자의 실험 결과, 모든 화자들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뚜렷한 악센트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하나의 동일한 부정문이 일반 부정에서 부정어(not, never, no, nothing)에 강한 피치 악센트를 부여한 반면, 전제 부정에서는 일반 부정과 달리 부정어가 아닌 어휘항목에 강한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다음은 영어 모국어 화자의 전체 결과를 <도표 1>로 나타낸 것이다.

도표 1. 영어 모국어 화자의 전체 결과

< FREQ 프로시저 >				
count	도수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0	8	22.22	8	22.22
1	28	77.78	36	100.00
<같은 비율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11.1111	
		자유도	1	
		Pr > ChiSq	0.0009	
표본 크기 = 36				

<도표 1>을 보면 영어 모국어 화자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분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한 전체 통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영어 모국어 화자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분하는 비율이 77.78%이며 구분하지 못한 비율은 22.22%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4 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추가 녹음한 2 명의 화자는 앞서 실험한 4 명과 실험 문장과 발화 횟수가 일치하지 않아 전체 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비율을 SAS 8.1에서 일차원 빈도 분석의 카이 제곱 검정에 의해서 살펴 볼 때, 악센트의 차이를 두는 77.78%와 악센트의 차이를 두지 않는 22.22%는 유의 수준 0.05하에서 유의 확률 0.0009로 유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모국어 화자는 동일한 부정문을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에서 악센트 위치의 차이로 뚜렷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두 유형의 부정문을 구별하지 못한 22.22%는 실험 문장 중 '조동사+부정어'로 구성된 4 개의 문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그 문장들의 악센트의 실현 양상에 있어서 모국어 화자들의 불일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조동사+부정어'의 네 가지 실험 문장에서 2 명(MB, KM)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뚜렷한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였으나 2 명(JC, ZI)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두 유형의 부정문을 동일하게 발화하는 등 악센트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발화를 다음 피치곡선을 통해 살펴보자.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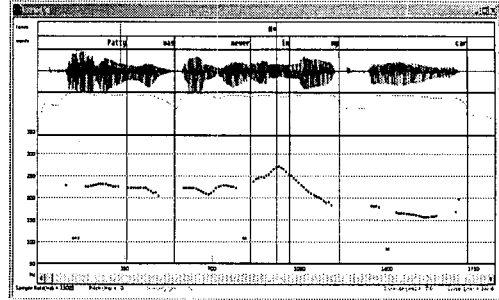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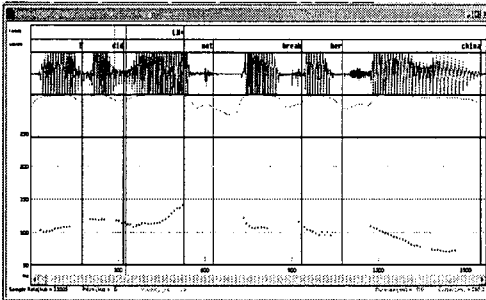


그림 1. (1) 'Patty was never in my car'의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억양곡선

<그림 1>에서는 실험 문장(1) 'Patty was never in my car'라는 동일한 부정문이 일반 부정인 경우 (1a)와 전제 부정인 경우 (1b)에서 뚜렷하게 다른 악센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반 부정에서는 부정어 'never'에 피치 악센트 LH*를 부여하고 있으나, 전제 부정은 전치사 'in'에 악센트 H*를 부여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때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의하면, LH*는 H*와 동일하게 신정보를 강조하는 것이지만 현저한 정도(salient scale)를 나타낸다. 'in'에 H*를 부여하여 '패티가 내 차 안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never'에 LH*를 부여함으로써 '패티가 내 차에 없었어, 있을 리가 없지' 등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실험 문장 (4)도 실험 문장 (1)과 같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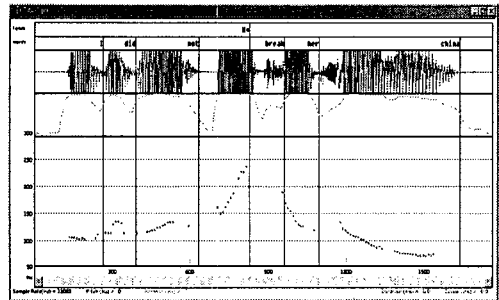


그림 2. (4) 'I did not break her china'의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억양곡선

<그림 2>의 피치곡선은 '조동사+부정어'로 이루어진 실험 문장 (4) 'I did not break her china'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과 동일하게 일반 부정인 (2a)에서는 부정어 'not'에 LH* 악센트가 부여된 반면, 전제 부정인 (2b)의 경우는 부정어가 아닌 동사 'break'에 피치 악센트 H*가 부여되었다. (2a)의 경우 'not'에 LH*가 부여된 것은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따라 '도자기를 깨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내가 왜 그녀의 도자기를 찢니까, 저는 그럴만한 이유가 없지요' 등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그림 2>에서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피치 악센트의 차이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 부정의 경우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동사)에 악센트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제 부정문에서 부정어가 아닌 기능어의 역할을 하는 어휘 항목에 악센트가 부여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의 차이를 다음 (10)과 <그림 3>을 통해 살펴보자.

(10) A: Why haven't you started reading yet?

B: There are no books **TO** read. (Gussenhoven 1983: 413)

Gussenhoven(1983)에서는 (10)과 같은 전제를 포함한 전제 부정문의 경우 전치사 'to'에 악센트가 부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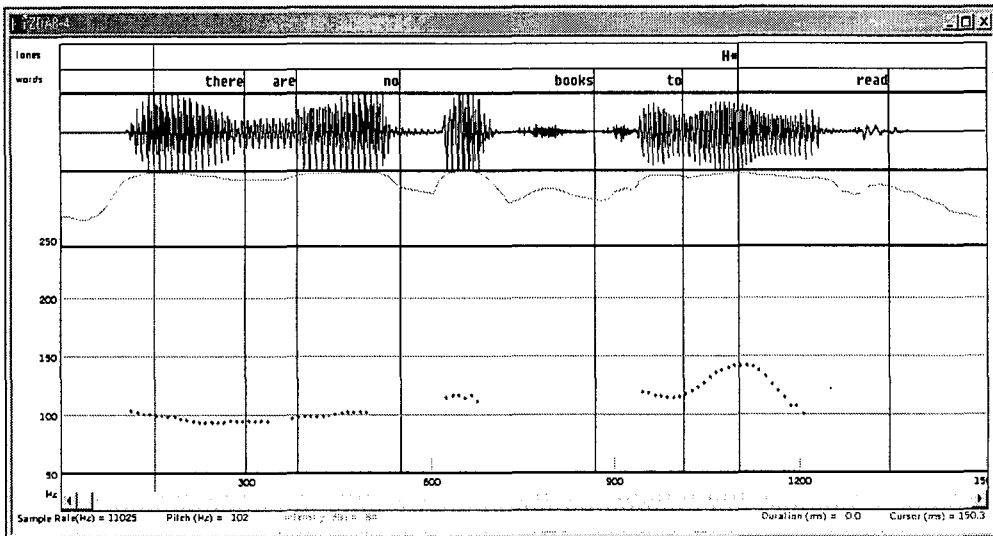


그림 3. (7) 'There are no books to read'의 전제 부정의 억양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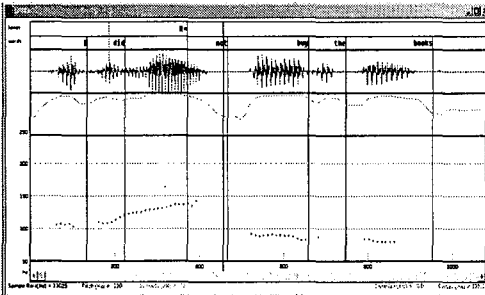
<그림 3>은 실험 문장 (7) 'There are no books to read'가 전제를 포함한 문장으로 발화 되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Gussenhoven(1983:413)에서 기술한 악센트의 양상과 차이가 있다. 즉, Gussenhoven(1983:413)은 실험 문장(7)의 경우에 악센트의 위치가 전치사 'to'에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실제 실험 결과는 전치사가 아닌 동사 'read'에 악센트가 부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험 결과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3.1.1 문장별 실현 양상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는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결과를 문장별로 분석해 본 결과 영어 모국어 화자는 문장의 구성 성분에 따라 약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실험 문장에서 (1), (3), (6), (7), (8)의 경우는 4명의 영어 화자들이 모두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차이로 잘 구별하였다. (1), (3)번과 같은 실험 문장에서는 일반 부정은 부정어 'never, not'에 악센트가 부여되었고, 전제 부정인 경우는 전치사 'in, on'에 악센트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3)번 실험 문장에서 ZI는 전제 부정과 일반 부정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ZI는 일반 부정의 경우, 문장의 주어 'house'에 H*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약센트 해지(deaccenting)를 시켰으며, 전제 부정인 경우 오히려 부정어 'not'에 H*를 부여하고 있다. MB의 경우는 (8)번 실험 문장에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차이를 약센트의 전환(shift)으로 구분해 주고 있었다. 즉, 일반 부정에서는 'nothing'의 'not'에 약센트를 부여하였고, 전제 부정에서는 'nothing'의 'thing'에 약센트가 실현되었다. (6), (7), (8)의 실험 문장은 일반 부정인 경우 부정어에, 전제 부정인 경우 부정어 뒤의 동사 'read, look, say'에 약센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문장의 구성상 이와 다른 실험 문장인 (2), (4), (5), (9)에서는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분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실험 문장들은 모두 '조동사+부정어'의 형태로 2명(MB, KM)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차이를 잘 구별하고 있으나 나머지 2명(JC, ZI)의 화자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 모두 부정어를 강조하고 있다. MB와 KM은 일반 부정에서는 부정어에 약센트를 부여하고 전제 부정에서는 부정어 뒤의 동사에 약센트를 부여하였으나, JC와 ZI는 두 가지 부정 모두에서 부정어에 피치 약센트를 부여하였다. 다음 <그림 4>를 살펴보자.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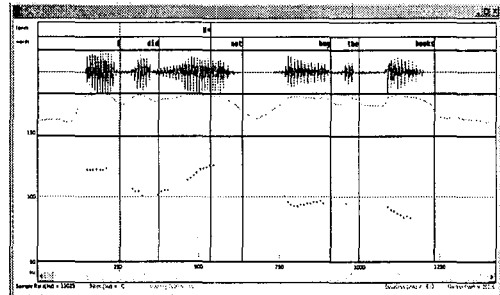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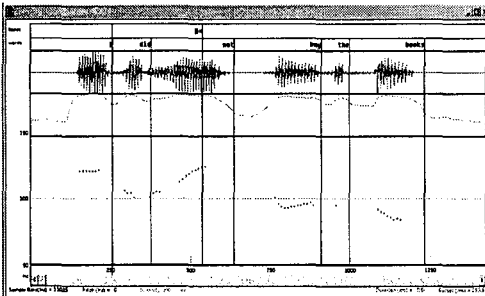


그림 4. (5) 'I did not buy the books'의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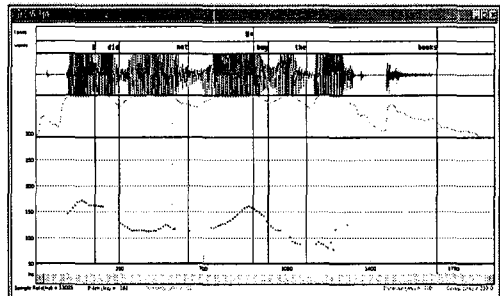


그림 5. (5) 'I did not buy the books'의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는 경우

<그림 4>와 <그림 5>는 실험 문장 (2), (4), (5), (9) 중에서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실험 문장(5)를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약센트의 차이로 구별하지 않는 경우와 구별하는 경우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4>에서는 실험 문장(5) 'I did not buy the books'에서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지 않아 둘 다 부정어 'not'에 피치 악센트가 부여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에서는 일반 부정은 부정어 'not'에, 전제 부정은 동사 'buy'에 피치 악센트를 부여함으로써 두 유형의 부정을 구별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조동사+부정어'의 형태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영어 모국어 화자 2명(LB, SS)의 발화를 더 녹음·분석한 결과, 한 명(LB)의 화자는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위치로 구별하여 발화하였으나, 다른 한 명(SS)은 전제 부정과 일반 부정 모두에 부정어에 악센트를 부여하므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위치로 구별하여 발화하지 않았다. 추가 녹음한 모국어 화자 중의 한 명인 LB는 일반 부정의 경우 부정어 'not'에만 악센트를 부여하였고, 전제 부정의 경우에는 부정어를 강조하면서 조동사인 'did'에 역시 악센트를 부여함으로써 일반 부정과 구별하거나 부정어를 제외한 'did'와 일반 동사를 강조함으로써 일반 부정과 구별하였다. 또한, 조동사에 악센트를 부여하지 않을 때는 동사만 강조하여 일반 부정과 구별하였다. 이처럼 LB는 다양한 형태로 전제 부정을 일반 부정과 구별하여 발화하였으며, 다음 <그림 6>에서 실험 문장 (9)에 대한 LB의 억양곡선을 살펴볼 수 있다.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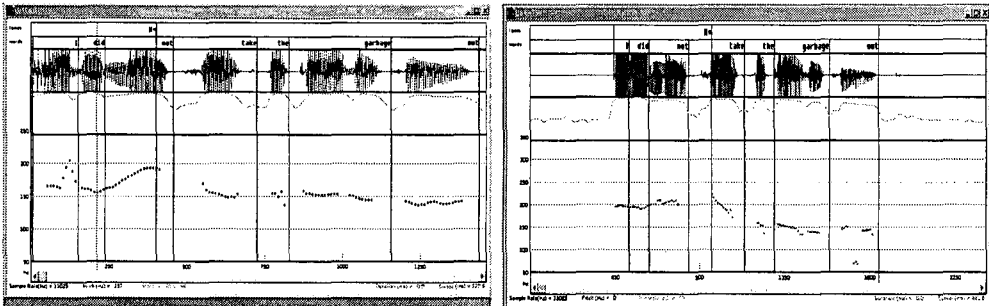


그림 6. (9) 'I did not take the garbage out'의 LB의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 실현 양상

<그림 6>에서 보듯이 LB는 일반 부정인 (6a)에서 부정어 'not'에 피치 악센트로 H*를, 전제 부정인 (6b)에서는 동사 'take'에서 H*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 6>을 통해서 LB는 다양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차이를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 화자별 실현 양상

영어 모국어 화자의 실험 결과를 화자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는 조동사를 포함한 문장에서 악센트를 다른 양상으로 실현한 2 명의 화자를 포함하여 총 4 명의 결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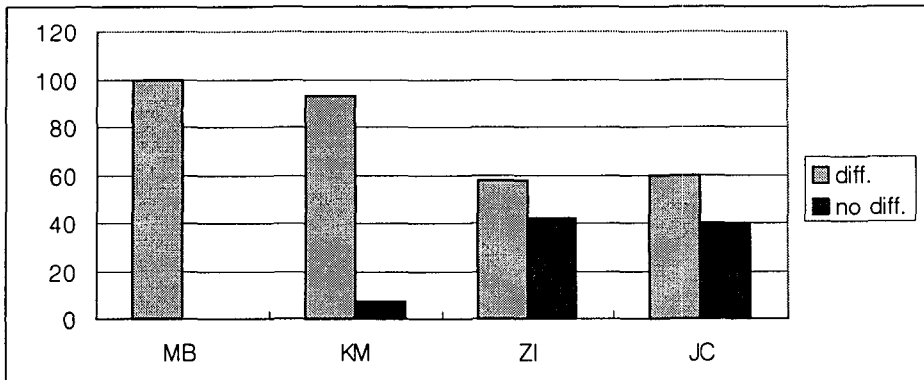


그림 7.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화자별 실현 양상

<그림 7>은 영어 모국어 화자의 화자별 실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 그림에서 보듯이 MB는 100%의 비율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고 있고, KM도 거의 100%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JC와 ZI는 위의 두 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 (4), (5), (9)의 실험 문장에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2), (4), (5), (9)의 실험문장에 대해서 추가 녹음한 영어 모국어 화자인 LB는 다양한 양상이기는 하지만 전제 부정을 일반 부정과 구별하고 있으나, SS는 구별하지 못하였다.

3.1.3 악센트 유형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실험 결과를 분석 한 결과 대부분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에서 악센트가 부여되는 곳에 대부분 H*를 부여하였고 간혹 LH*에 의해 부여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LH*는 H*에서처럼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면서 정도(scale)의 의미를 전달한다. 본 실험에서는 모국어 화자가 악센트 받은 항목에 대부분 H*를 부여하였다. 이런 결과가 일반 부정에 대한 악센트 유형에 대한 가설과는 일치하였으나, 전제 부정에서 보이는 악센트의 유형은 이 논문의 [가 설II]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 설II]에서는 전제 부정의 경우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악센트가 L*가 부여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 실험한 결과 총 260 개의 토큰 중 L*로 실현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3.2 한국인 화자들의 실험 결과

영어 모국어 화자의 결과와는 달리 4 명의 한국인 화자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차이를 피치악센트 실현의 차이로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다음 <도표 2>에서 한국인 화자들의 전체 결과를 제시하였다. 도표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분하는 비율은 매우 미약한 2.78%로써 한국인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거의 구별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이 값을 SAS 8.1에서 일차원 빈도 분석의 카이 제곱 검정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유의 수준 0.05하에서 유의 확률 <.0001을 나타냄으로써 한국인들은 전혀 일반 부정과 전

제 부정을 구분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도표 2. 한국인 화자의 전체 결과

< FREQ 프로시저 >				
count	도수	백분율	누적 도수	누적 백분율
0	35	97.22	35	97.22
1	1	2.78	3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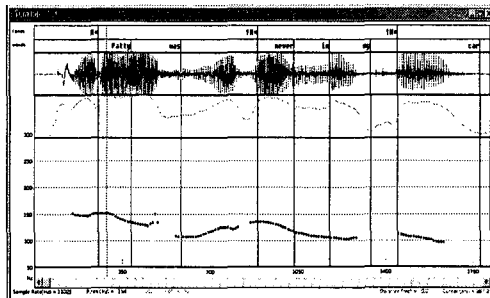
<같은 비율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32.1111
 자유도 1
 Pr > ChiSq < .0001

표본 크기 = 36

한국인 화자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 모두에서 부정어에 악센트를 부여하므로 두 가지 부정을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어를 포함한 모든 내용에 악센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 발화의 큰 특징으로 간주된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국인 발화의 특징으로는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발화에서 특정 항목을 강조하지 않고 첫 내용을 강조한 이후 분명한 경사(declination)를 보이며 그 결과 단계 하강(downstep)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8>은 한국인 화자의 대표적인 억양 양상이다.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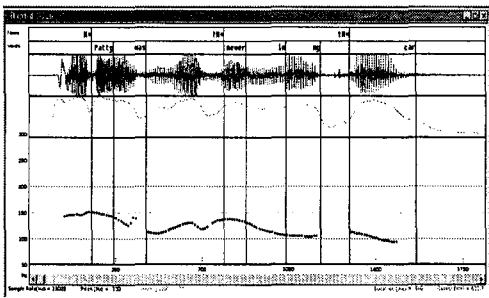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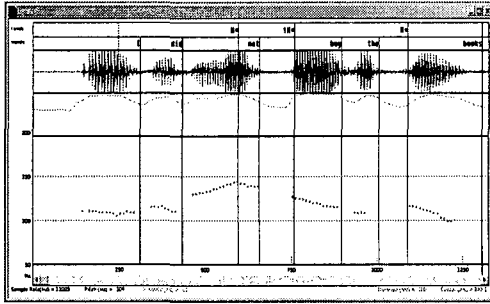


그림 8. (1) 'Patty was never in my car'에 대한 한국인의 억양곡선

<그림 8>은 실험 문장(1)에 대한 한국인 화자들의 억양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 8>에서 보듯이 한국인 화자들은 동일한 부정문에 대해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 구별 없이 두 가지 부정 모두에서 동일한 억양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악센트의 차이로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로 'did not'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림 9>에서도 한국인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고 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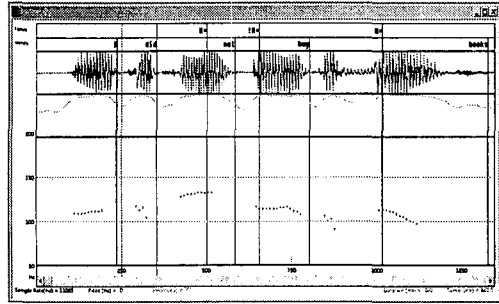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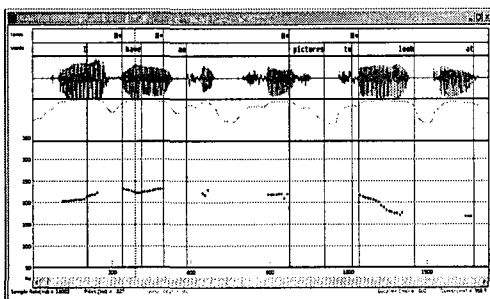
그림 9. (5) 'I did not buy the books'의 억양 곡선

역시 <그림 9>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은 실험 문장 (5)에 대해서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 모두 동일한 악센트로 구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한국인들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결과와 상이한 양상이긴 하나 한국인 화자 중 1명은 실험 문장(6) 'I have no pictures to look at'에서 부정어 이외의 항목인 'look at'에서 악센트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두 부정문을 구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11) I have no pictures to look at

H* H* H* H* (일반 부정)
 H* H* H* !H* (전제 부정)

(a) 일반 부정



(b) 전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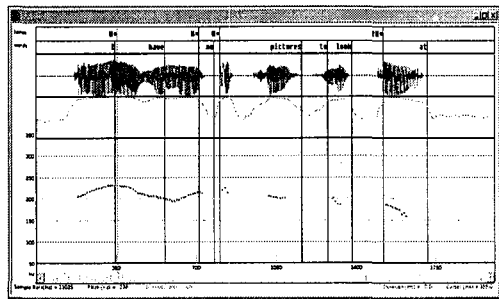


그림 10. (6) 'I have no pictures to look at'의 한국인 화자의 억양 양상

<그림 10>에서 보듯이 이 한국인 화자는 일반 부정의 경우에는 동사 'look'에서 피치 악센트 H*를 부여하였고, 전제 부정의 경우는 전치사 'at'에 피치 악센트를 부여하므로 두 가지 부정을 악센트의 위치 차이로 구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다른 실험 문장들과

다른 화자들에게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므로 한국인이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구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인 화자들의 결과는 (2), (4), (5), (9)번 실험 문장들에서 보이는 모국어 화자 ZI, JC의 양상과도 다르다. 이들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전제 부정과 일반 부정 모두 동일하게 부정어 'not'에 피치악센트를 부여한 반면, 한국인들은 부정어를 포함한 모든 어휘 항목에 동일하게 악센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들이 영어를 발화할 때 나타나는 주된 양상으로 간주되며 한국인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영어 모국어 화자처럼 일관성 있게 구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4. 논의 및 결론

본 실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영어 모국어 화자들은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을 악센트의 차이로 잘 구별하였다. 즉, 본 실험에서 가정한 첫 번째 가설과 같이 일반 부정문에서 부정어를 강조한 반면, 전제 부정문에서는 부정어 이외의 어휘 항목, 즉 전치사 등의 기능어(empty; functional words)나 동사나 목적어와 같은 내용어를 강조하여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기능어가 악센트를 받는 이러한 결과는 Bolinger(1986)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Bolinger(1986)에 의하면, 악센트를 받은 전치사가 단순한 기능어가 아니라 전치사 자체의 강조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실험 문장(1) 'Patty was never in my car'에서 'in'이 강조되고 있으며 '패티가 내 차안에 있다'라는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전치사 'in'을 강조하여 발화한 것은 전치사가 마치 내용어와 같은 의미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모국어 화자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실험 문장들 간에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1), (3), (6), (7), (8)과 같이 문장 내에 전치사가 포함되어거나 'not'이 아닌 'no', 'nothing' 등의 부정어를 포함한 문장에서 일반 부정문의 경우 부정어에 악센트를, 그리고 전제 부정문의 경우 전치사나 부정어 뒤의 동사에 악센트를 부여하였다. 반면, (2), (4), (5), (9)의 실험 문장에서는 화자별 변이를 보여주었다. 세 명의 화자는 일반 부정과 전제 부정의 차이 없이 모두 부정어에 악센트를 주었으며, 나머지 세 명의 화자의 경우 일반 부정문에서는 부정어에, 전제 부정문에서는 동사나 다른 어휘에 악센트를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실현하였다. 이러한 전제 부정문의 실현 양상은 상대방 발화의 전제를 부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화자 간에 강조의 위치를 달리함으로써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유형의 부정에서 모두 부정어에 악센트를 부여한 경우, 이는 세 화자가 다른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부정의 유형을 구별하는 듯 보이나 오히려 일반 부정에서보다 전제 부정에서 부정어를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전제부정문에서도 일반부정문에서처럼 부정어를 강조한 외국인 화자에게서 피치범위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전제부정에서의 부정어 'not'의 정점의 높이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음운론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며 보다 다양한 문장 구성 성분을 통한 보충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두 유형의 부정문을 영어 모국어 화자와 한국인 화자 대부분 H* 악센트에 의하여

실현한 것은 전제 부정문에서 L* 악센트가 부여될 것으로 가정한 두 번째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Pierrehumbert & Hirschberg(1990)에 따르면, H* 악센트의 실현은 악센트 받은 어휘를 화자가 새로운 정보로 인식하고 청자로 하여금 신정보로 해석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반면, L*는 구 정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화자들이 일반 부정에 H*를 부여하는 것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화자가 '~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정보를 새롭게 첨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제 부정에서 나타나는 H* 악센트는 새로운 정보가 부정어에 있지 않고, 전제를 수정하는 항목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이는 또한 화자의 인식 영역의 차이로도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일반 부정의 경우 화자는 전제 발화를 부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정어에 악센트를 부여한 반면, 전제 부정의 경우는 선행 발화에 내포된 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강조되는 곳은 전제 발화가 아닌 전제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실험 문장(4) 'I did not break her china'의 경우 선행 질문은 'why did you break her china?'이며 이 질문 속에 '그녀의 도자기를 깬다(break her china)'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기 위해 이 영역 안의 항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본 실험 문장에서는 모든 외국인 화자들이 전제된 영역(the domain of presupposition)에서 첫 번째 항목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실험 문장 (4)에서 전제된 영역은 'break her china'가 되며 그 영역에서 첫 번째 항목인 동사 'break'가 악센트를 받았다. 또한, 실험 문장(1) 'Patty was never in my car'의 경우 전제된 영역은 'in my car'이며 그 영역의 첫 번째 항목인 'in'이 악센트를 받았다. 본 실험의 자료에서는 전제된 영역의 첫 번째 항목이 일관되게 악센트를 받고 있으나 이 결과가 전제 부정의 경우 첫 번째 영역이 가장 선호된다(initial strengthening)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며 일반적인 음운적 이론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짜임새 있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

넷째, 한국인의 실험 결과 대부분의 발화에서 부정어를 포함한 내용어에 악센트를 부여하며 경사(declination)와 단계하강 현상(downstep)이 일관되게 나타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경사와 단계하강은 발화 초에 있는 어휘를 강조한 후 점차 기본 주파수(F0)를 떨어뜨려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반 부정문과 전제 부정문을 악센트의 차이로 잘 실현한 영어 모국어 화자의 피치 곡선에서 단계하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유형의 부정문에서 특정한 항목에 초점을 두어 강조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반면 한국인의 발화에서 단계하강이 두드러진 것은 특정항목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억양과 관련한 여러 기존의 실험에서 한국인 화자가 모든 내용어에 악센트를 부여하여 'H* H*...H*'와 같이 악센트가 발화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억양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인 화자의 악센트의 양상이 본 실험에서 계획한 두 유형의 부정문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 화자 자신이 두 유형의 부정문을 동일한 문장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피험자로 선택한 한국인 대학생들이 중·고교에서 부정어가 새로운 정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부정어가 포함된 문장에서 언제나 부정어가 강조된다고 학습되어온 결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부정어가 포함된 전제 부정문에서도 한국인 화자들은 전제의 개념과 상관없이 부정어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Bolinger, D. 1985. "Two views of accent." *Journal of Linguistics*, 21, 79-123.
- Bolinger, D. 1986. *Intonation and its use; melody in grammar and discours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ssenhoven, C. 1983. "Focus, mode and the nucleus." *Journal of Linguistics*, 19, 377-417.
- Katz, J. J. 1972. *Semantic Theory*. New York: Harper & Row.
- Liberman, M & I. Sag. 1974. "Prosodic form and discourse function." In *Papers from the Ten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s Society*. 416-427. Chicago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II.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errehumbert, J. B. 1980. *The Phonology and Phonetics of English inton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 [reproduc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Pierrehumbert, J. B & J. Hirschberg. 1990. The meaning of intonational contours in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 in P. R. Cohen, J. Moregan, & M.E. Pollock(eds.) *Intentions in Communication*, Cambridge, MA: MIT Press. 271-311.

접수일자: 2001. 10. 30.

게재결정: 2001. 12. 4.

▲ 전지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jlm72@hanmail.net

▲ 박순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scully@igroupnet.net

▲ 김기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우: 136-701)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Tel: +82-2-3290-1988

E-mail: keehokim@korea.ac.kr